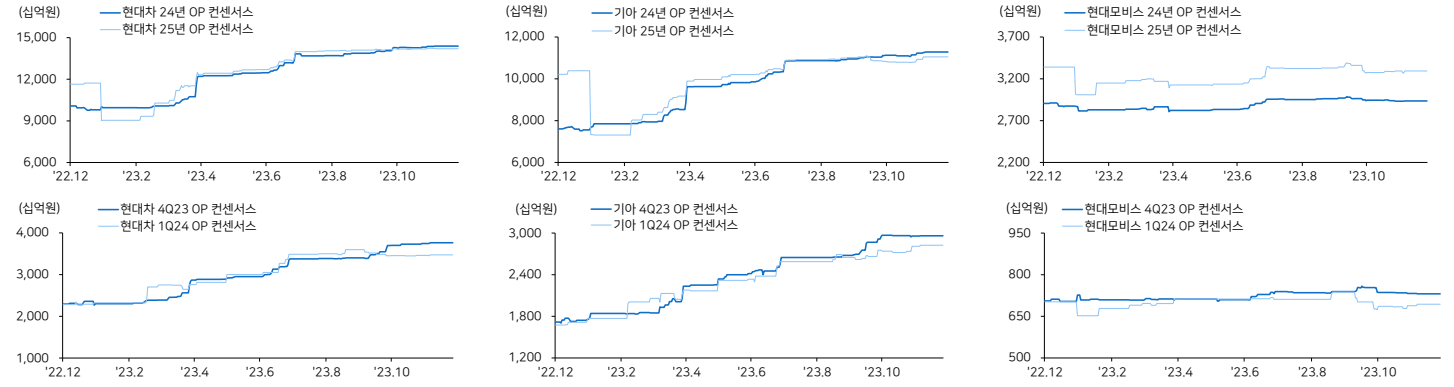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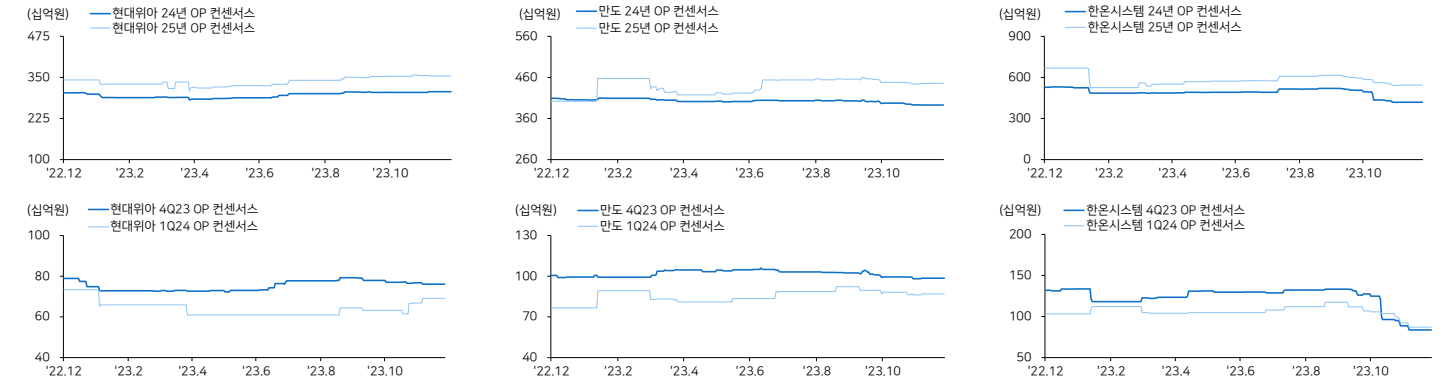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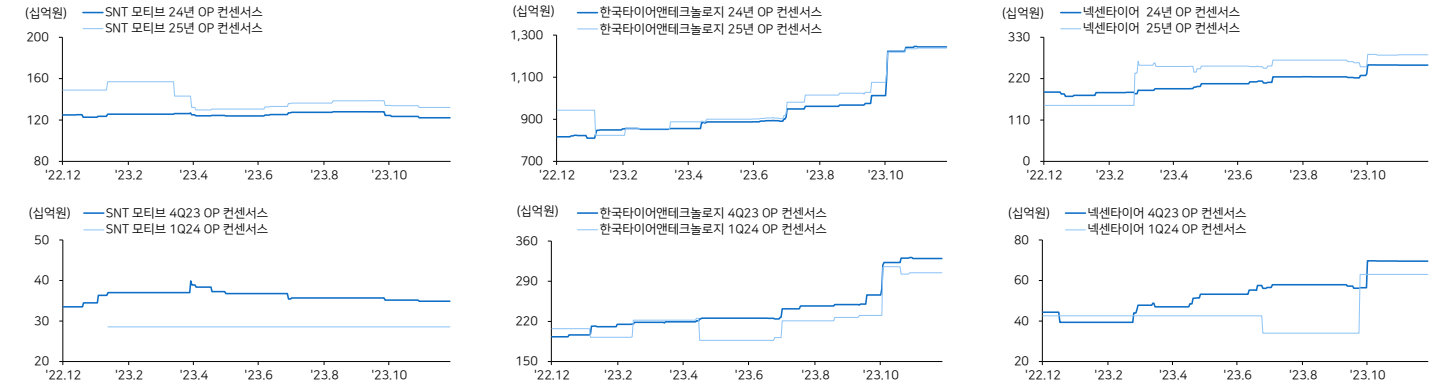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주요 뉴스

China's Dec NEV wholesale sales at record 1.13 million units, CPCA estimates show (CnEVPost)

CPCA의 추정에 따르면 수출을 포함한 중국의 12월 NEV 도매 판매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중국의 12월 승용 NEV 도매 판매량은 전년 대비 50% 및 11월 대비 18% 증가한 113만 대로 추정
<https://han.gl/DuslqH>
<https://han.gl/eeuych>

GM Q4 sales: Ultium grows, Bolt ends best year ever, GM EV share low at 3.1% (Electrek)

GM은 4분기에 19,469대의 전기차를 판매, 직전 분기의 20,092대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며 전기차 점유율은 3.1%에 그침. 업계는 세보레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볼트EV가 시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https://han.gl/eeuych>

Italy Weighs \$1 Billion Package to Boost Electric-Vehicle Sales (Bloomberg)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ICE 차량을 반납하고 전기차 구매 장려를 위한 9.3억 유로 (10억 달러) 규모의 플랜을 고려 중. 해당 플랜에는 연소득이 3만 유로 미만의 시민이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3,750 유로의 재정적 인센티브가 포함
<https://han.gl/vdHKRp>

승호성 기아 사장 "광명 공장, EV3·4 연간 15만대 생산" (뉴시스)

승호성 기아 사장이 오트랜드 광명에서 기아의 EV 볼륨 모델인 EV3와 EV4를 연간 15만대 생산할 것이며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 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언급. 해당 광명 2공장은 2024년 3분기 무렵 EV3 생산을 위한 가동 예정
<https://han.gl/LAPJW>

Nio issues repurchase right notice for convertible senior notes due 2026 (CnEVPost)

중국 니오가 2026년 만기 전환사채 보유자들에게 2/1에 회사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환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통지한다고 발표. 발행된 CB를 전액 환매할 경우 총 현금 매입 가격은 301,448,000 달러로 예상
<https://han.gl/Nntglu>

Tesla sells 94,139 China-made cars in Dec, 2nd highest on record (CnEVPost)

CPCA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 기아상하이는 12월 94,139대의 전기차를 판매하여 2022년 11월의 100,291대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 수출을 포함한 월간 판매량은 전년 대비 68.7% 및 전월 대비 14.2% 성장
<https://han.gl/OtGRg>

UK Law Mandates Zero Emission Vehicles by 2035 (Mirage News)

영국에서 모든 신차와 승합차의 ZEV (Zero-Emission Vehicle) 의무화를 규정하는 세부 방침이 법제화. 법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영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80%와 승합차의 70%가 ZEV가 될 것이며, 2035년에는 100%로 늘어날 전망
<https://han.gl/loXph8>

SDV에 꽂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소프트웨어 약점 극복하자" (블로터)

정의선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올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언급. 정 회장은 현대차가 현재 SDV 사업을 전개 하고 있지만 SW 측면에서의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며 향후 품질과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전달
<https://han.gl/qUGrYO>

"현대차·기아 520만 대 브레이크액 누유, 리콜 사유 아냐"…美 NHTSA 결론 (더구루)

현대차, 기아의 520만대에 달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제기된 브레이크액 누유 리콜 청원에 대한 조사 결과, NHTSA는 리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NHTSA는 제조사 측 결함이 아닌 유지 관리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
<https://han.gl/XGebDg>

리비안, 조지아의 메가 팩토리 설립...2030년까지 55만대 생산 능력 확보 (서울경제)

클레이코(Clayco)의 발표에 따르면 리비안이 조지아주 스탠튼 스프링스에 728만㎡의 부지에 최첨단 공장의 건설할 예정. 리비안은 새로운 조지아 공장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 기준, 연간 생산 능력을 55만대 수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
<https://han.gl/nbjkV>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문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